

盆栽 [7]

이제 부터

重要 하다—

氣溫이 갑자기 내려 가게 되면 盆栽가 害를 입지나 앓을까 하여 성급하게 保温對策을 서두르거나 室内에 들여 놓은 事例가 많아진 다.

특히 初心者들의 境遇에는 이 맘때 부터 越冬期間동안의 盆栽 管理에 있어 많은 失敗를 하게 되고 各樣各色의 管理方法으로 右往左往하다가 失望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盆栽와 熱帶地方에서 自生하는 觀葉植物들과 혼 돈해서 生覺하는데 問題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盆栽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氣候風土에 適應하면서 自生하는 樹種을 素材로 하여 培養하고 있는反面에 지금까지 우리들의 生活空間에서 많이 接해 왔던 花盆類는 均자란 이라던가 고무나무 또는 소철, 관 음죽등 그 밖에도 거의 모두가 열대지방 식물을 導入해서 길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植物들 은 四季節이 뚜렷한 우리의 氣象 條件下에서 適應할수가 없기 때문에 人爲的으로 加溫을 해서 越冬하지 않으면 冬害를 입게되므로 그와같은 隨性 때문에 盆栽도 保温을 해야만 越冬이 可能할것 으로 여기는 習性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가 分明히 알아야 할것은 盆栽는 겨울철에 아무리 ぽ꿍 얼더라도 봄이 되면 파랏파

랏 새 싹이 돋아 나고 꽃이 피는 強忍한 生命力을 지닌 나무(열대, 관엽식물이 아님)라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觀念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山野에는 누가 일부러 심지 않아도 많은 나무들이 ぱ꺽히 들어 서 있는것을 생각해 보자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트고 어린 묘목이 해마다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어린 묘목의 경우는 뿌리가 땅 속에 10cm 내외로 밖에 묻혀 있지 않다. 중부 지방의 경우 겨울철에 땅이 어는 (結氷) 깊이는 100cm가 넘을 때 도 있는데 10cm내외로 뿌리가 땅 속에 묻힌 묘목은 뿌리전체가 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盆栽를 겨울에 얼려야 한다고 하면 “얼어 죽을까” 걱정이 된다고들 한다. 절대로 염려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터의 盆栽管理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

氣溫이 0℃ 以下로 내려 가더라도 지금까지 기르던 곳에 그대로 두고(밖에) 서리를 세번 정도 맞힌다.

여름철에 肥料를 充分히 준 盆栽는 아직도 잎이 싱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는 잎이 거의 떨어지고 가지 끝에 몇 개씩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리를 세번 쯤 맞게 되면 모든 나무

잎이(상록수를 제외하고) 시들어져 떨어지게 된다. 이맘 때가 대략 11월初 내지 中旬頃이 될 것이다.

잎이 完全히 떨어진 다음에는 영성한 가지들을 깨끗이 정리(剪完)한 다음 석회 유황합제를 30~50배액으로 물에 희석해서 나무 전체에 골고루 뿌려서 병충해를 예방 한 다음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 안 쪽에, 그리고 일반住宅의 경우에는 양지바른 현관이나 햇볕이 잘 드는 居室 바깥 쪽 베란다에 들여 놓는다. 勿論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 가면 盆全體가 얼게 되지만 낮에 별이 나면 녹아서 풀리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이 反復되면서 겨울을 나게된다. 이 때에 盆에 물기가 너무 많게되면 盆土가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花盆이 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물을 오전중에 주어서 물기가 배수되고 나서 저녁의 낮은 기온을 맞게 해야 한다. 또 겨울철에 盆栽를 두는 場所가 마땅치 않은 家庭에서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落葉樹의 경우는 浴室이나 地下室과 같은 곳에 두어도 無放하다. 다만 소나무류나 향나무 종류와 같은 常綠樹는 겨울철에도 햇볕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에서 월동을 시키는 것은 盆栽를 枯死시키는 原因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물 주기는 盆土가 마르는 狀態를 잘 관찰 해 가면서 주되 休眠期이므로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3~4일에 한번 주는 程度의 基準을 지켜서 灌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